



예금은행 가계대출 전월대비 증가폭 확대

채원영 연구원

- 2012년 8월 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460조 1,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1조 5,000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택대출과 기타대출¹⁾ 모두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대출은 전월대비 7,000억 원 증가하여 전월보다 4,000억 원 늘어났는데, 이는 은행들의 고정 금리상품 판매 확대 노력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기타대출은 전월대비 8,000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휴가철 자금수요가 확대되었기 때문임.
- 2012년 4/4분기 중 예금은행의 가계주택자금 대출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가계주택자금 대출수요는 2012년 9월 10일에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²⁾ 유동화조건부적격 대출³⁾ 취급은행 확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은행의 가계주택자금에 대한 대출태도는 은행의 양호한 자금사정 등으로 소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2012년 4/4분기 중 예금은행의 가계 기타대출 증가폭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한 대출수요 정체,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로 인한 은행의 가계 대출에 대한 신중한 태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2012년 8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외, 한국은행, 10/9)

1) 마이너스통장 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주택대출이외의 가계대출.

2) 2012년 말까지 양도세(미분양주택 취득 시 5년간 100% 면제), 취득세(25~75% 감면) 감면.

3) 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에 적합하도록 규정한 조건에 맞춰 국내은행이 2012년 3월부터 판매하는 장기고정금리부 주택담보 대출로 금리가 연 4%대 초반으로 상대적으로 낮고 2012년 9월부터 지방은행, 수협,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국내 은행(9개)이 취급할 예정임.